

기고

손재원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커피 한 잔 값으로 정치 참여하기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여러 번에 걸쳐 소액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 유권자들을 '슈퍼도우너(super donor)'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후원금 기부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소개했다. WSJ이 취재한 한 슈퍼도우너는 '캠프에 작은 선물을 소나기처럼 쏟는 것이 열광을 표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슈퍼도우너들은 후원

금을 정치참여의 목소리로 활용할 줄 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언론에 보여줄 수 있고 언론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정치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현

함으로써 정당과 정치인으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투표로도 말할 수 있지만 정치후원금으로도 정치참여 기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최소단위가 없어 커피 한 잔 값인 소액으로도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www.give.go.kr>)나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이나

PAYCO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가 매년 베어지는 1,300억 원의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니, 안 쓰는 포인트로 생색낼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다.

기업들은 카드 포인트 서비스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니 정치후원금

제도야 말로 1석 2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정치후원금제도가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에게 하트를 보내고 별 풍선을 쏘는 것처럼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좋은 정책들을 끊임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적지만 큰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쉽고 정당한 방법으로 후원하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건강한 민주사회로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 미세먼지 농도 악화 중? ... 사실 그렇지 않아

2018년 3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나쁨'으로 예보되는 일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사람은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연도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완화되거나 또는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 환경정보에 따르면,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음과 같다.

2000년 58 $\mu\text{g}/\text{m}^3$, 2005년 49 $\mu\text{g}/\text{m}^3$, 2010년 45 $\mu\text{g}/\text{m}^3$, 2015년 41 $\mu\text{g}/\text{m}^3$, 2018년 41 $\mu\text{g}/\text{m}^3$,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2001년 45 $\mu\text{g}/\text{m}^3$ 2005년 43 $\mu\text{g}/\text{m}^3$, 2010년 42 $\mu\text{g}/\text{m}^3$, 2015년 38 $\mu\text{g}/\text{m}^3$, 2018년 35 $\mu\text{g}/\text{m}^3$ 인 것으로 판측되어 수치상으로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세먼지 농도가 완화되고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좋은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대기환경 기준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50 $\mu\text{g}/\text{m}^3$ 이며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은 20 $\mu\text{g}/\text{m}^3$ 인데,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약 40 $\mu\text{g}/\text{m}^3$)는 그사이에 존재해,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국 기준에 따르면 농도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가 10 $\mu\text{g}/\text{m}^3$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와 노력을 멈추면 충분히 농도가 다시 기준치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며, WHO 권고 기준과 비교해보면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권고치의 2배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외의 대기 질과 비교해도 2018년 미국 33 $\mu\text{g}/\text{m}^3$, 영국 17 $\mu\text{g}/\text{m}^3$, 프랑스 21 $\mu\text{g}/\text{m}^3$ 등 주요 OECD국가의 도시 대비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악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호남의 미세먼지 오염 양상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과 국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완화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기 수치를 분석해 이제 보다 오늘,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미세먼지가 악화하고 있다는 소개를 하는 자료가 많고, 이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악화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단기적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바람의 세기, 방향, 혹은 강수량 등 자연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단기 추이를 이용하기보다는 장기 추이를 활용해 미세먼지 오염도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미세먼지가 완화되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 미세먼지가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니, 더 맑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노력 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주현경 / 연세대학교 재학생

社說

'민식이법' 의미 되새겨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니 늦었지만 이를 반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어여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지목돼 법안의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끊었다.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아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터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